

1/4分期 에너지消費 動向



李東圭
(動力資源部·企副課長)

I. 머리말

지난 2次石油波動 이후 우리 나라 에너지 소비는 80년 1.5%, 81년 4.4% 증가에 그쳤고, 82년에는 0.2% 감소함으로써 1次石油波動 이후인 75~79년간 평균 10.7% 증가에 비하여 현저한 수요증가둔화현상을 보였고, 에너지소비 구조면에서도 石油비중이 78년 63.5%를 頂點으로 계속 감소하여 83년에는 56.5%로 낮아짐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과 石油代替에너지 보급확대에 많은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83년 3/4분기에 에너지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였고, 4/4분기에는 12%, 그리고 금년 1/4분기에는 16.5%의 증가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의식의 弛緩과 함께 우리 나라 에너지소비증가추세가 다시 1次石油波動 이후의 高度成長期의 에너지소비추세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금년 1/4분기의 에너지소비급증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4분기 에너지소비증가요인을 부문별·源別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總에너지 消費実績

1. 총에너지 소비

금년 1/4분기중 우리 나라 總에너지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石油換算 13,676천톤(薪炭제외)으로 추계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량은 84년도 에너지需給計劃上の 1/4분기 계획량보다 3.3% 증가한 것이며, 7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4분기 동안의 月別에너지소비동향을 살펴 보면, 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6.9%, 2월

年度別 1/4分期 에너지消費 推移

	80 1/4	81 1/4	82 1/4	83 1/4	84 1/4
消費量(千TOE)	11,627	12,027	10,933	11,741	13,676
增加率(%)	8.9	3.4	△ 9.1	7.4	16.5

註) 薪炭除外

總에너지 需給実績

源 別	單 位	83 1/4		1984						84 1/4	
			增加率	1 月	增加率	2 月	增加率	3 月	增加率		增加率
總 에 너 지	千TOE	11,741	7.4	4,854	16.9	4,344	16.4	4,478	16.1	13,676	16.5
石 油	千BBL	46,351	6.2	17,804	8.2	16,173	9.0	16,449	8.7	50,426	8.8
無 煙 炭	千 噸	6,530	11.4	2,789	19.1	2,275	8.4	2,507	20.0	7,571	15.9
有 煙 炭	千 噸	2,092	6.7	896	21.6	919	43.8	970	36.6	2,785	33.1
電 力	Gwh	9,635	11.0	3,690	12.6	3,544	14.3	3,709	13.6	10,943	13.6

註) 薪炭除外

16.4%, 3월에는 16.1% 증가로 지속적인 높은 伸張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에너지소비신장률은 첫째, 금년 1/4분기중 강추위 지속으로 인한 暖房用에너지 소비가 전년동기에 비해 18.0% 증가하였으며,

둘째, 우리 경제가 83년 이후 안정적인 好況局面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용에너지소비자가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고,

셋째, 산업생산급증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자동차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하여 수송용에너지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금년 1/4분기중 에너지소비증가분중 계절적 요인에 의한 난방용 수요증가분(總增加分の 45%)을 감안하면 에너지증가율은 10.7%로 분석된다.

이를 異常暖冬현상을 보인 지난 82년 1/4분기중 우리 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하였던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冬節期 에너지소비증가는 기온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分期中 에너지 消費

	81	82	83	84p	平 均 (80-84)
● 에너지소비 증가율 (전년대비 %)	3.4	△9.1	7.4	16.5	5.1
● 서울平均기온 (°C)	-0.9	1.0	1.0	-2.3	0.2
● 경제성장률 (%)	0.6	6.1	9.3	9.5	—

2. 에너지 源別 消費実績

가. 石 油

금년 1/4분기중 石油소비자는 각 부분의 전반적인

소비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다.

	81 1/4	82 1/4	83 1/4	84 1/4
● 消費量 (千BBL)	51,012	43,706	46,351	50,426
(전년대비 %)	(1.9)	(△14.3)	(6.1)	(8.8)
● 석유탄성치	3.17	2.34	0.66	0.93

이와 같은 石油소비증가는 산업용, 輸送用 및 난방용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發電用 石油소비자는 정부의 脫石油電源개발에 따른 原子力 및 有煙炭發電증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하였다.

部門別 石油需要增加率(前年對比 %)

產 業	輸 送	家庭·商業	公共·其他	發 電
10.6	20.6	16.6	12.6	△11.9

한편, 금년 1/4분기중 油種別 소비를 살펴 보면, 수송용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揮發油, 부탄은 각각 15.1%, 13.0% 증가하였으며, 83년 油價하락 이후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示顯하고 있는 나프타는 금년 1/4분기중에 19.0% 증가하고, 가정용연료인 프로판은 42.9% 증가하였다.

한편 B-C油는 난방용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發電用 수요감소에 기인하여 0.8%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금년 1/4분기중 原油도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51,685千배럴에 이르고 있다.

84 1/4分期中 主要油種別 需要增加率

	揮發油	輕 油	B-C油	나프타	L P G
● 前年同 期對比 (%)	15.1	17.2	△ 0.8	19.0	25.5

나. 無煙炭

금년 1/4분기중 無煙炭소비는 酷寒에 따른 난방용 수요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無煙炭 消費推移

	82 1/4	83 1/4	84 1/4
● 需要量(千톤)	5,864	6,530	7,571
● 前年対比増加率(%)	△14.6	11.4	15.9
● 暖房用増加率(%)	△18.4	13.2	17.8

최근 無煙炭소비가 급증한 요인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가옥구조의 無煙炭 暖房比重이 아직도 높을 뿐 아니라, 農漁村 및 산간벽지의 無煙炭 보급확대에 따른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전체 無煙炭 수요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난방용 수요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無煙炭수요증가로 83년 3/4 분기중 11,888천톤에 달했던 無煙炭在庫는 금년 3월말 현재 6,314천톤으로 감소하였다.

다. 有煙炭

그동안 주로 製鐵用 원료와 산업체의 B-C油代替代에너지로 사용되어 오던 有煙炭소비는 83년 하반기 이후 發電用수요의 創出으로 금년 1/4 분기중 소비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33.5%로 나타났으나, 發電用수요를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속에 따라 製鐵用 및 연료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有煙炭 消費推移

	82 1/4	83 1/4	84 1/4
● 需要量(千톤)	1,961	2,086	2,785
前年対比(%)	33.7	6.4	33.5
● 産業用増加率(%)	33.7	6.4	10.3

라. 電力

금년 1/4분기중 電力소비는 家庭·商業用 및 산업용 수요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용 소비가 前年同期對比 10.8% 증가하였으며, 최근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家庭·商業用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였고, 서울地下鐵 2号線 부분개통에 따라 수송용소비는 24.2%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82 1/4	83 1/4	84 1/4
● 需要量(GWH)	8,682	9,635	10,943
(前年対比, %)	(4.4)	(11.0)	(13.6)

한편 발전량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124.7億 KWH이며, 발전량중 原子力 및 水力發電비중은 83년 1/4분기중의 18.7%에서 금년 1/4 분기에는 30.8%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發電量中 原子力 및 水力비중이 제고됨에 따라 發電用에너지소비는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되었다.

3. 에너지 部門別 消費実績

가. 産 業

금년 1/4분기중 景氣好調에 따른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83 1/4	84 1/4
● 産業用需要量(천TOE)	4,332	10.6% 4,793
● 輸出増加率(%)	△ 1.4	30.7
● 産業生産増加率(%)	11.9	17.5

이에 따라 산업부문에너지 탄성치는 0.85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産業部門 에너지源別 需要増加率(前年対比, %)

石 油	無煙炭	有煙炭	電 力	計
10.7	13.7	10.3	10.8	10.6

나. 輸 送

금년 1/4분기중 輸送用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산업생산증가에 따른 出荷量이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3 1/4	84 1/4
● 輸送用需要量(千TOE)	1,434	1,729
		20.6%
● 製造業出荷增加率(%)	12.9	17.5
● 車輛增加率(%)	16.5	24.0

最近 自動車 增加推移

	81	82	83	86(計劃)
● 自動車數(千台)	571.8	647.0	785.3	1257.7
(前年對比, %)	(8.3)	(13.2)	(21.4)	(17.0)

다. 家庭·商業

금년 1/4분기중 酷寒으로 인해 가정·상업용에 너지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하였다.

	83 1/4	84 1/4
● 家庭·商業用 需要量(千TOE)	3,735	4,408
		18.0%
● 서울平均氣溫(1-2月℃)	-1.7	-4.7

이를 에너지源別로 살펴 보면, 石油 16.8%, 無煙炭 17.8%, 電力 19.8% 증가하여 各 에너지 源別로 골고루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公共·其他

금년 1/4분기중 公共·其他部門의 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652千TOE로 잠정· 집계되었다.

	83 1/4	84 1/4
● 公共·其他用需要量(千TOE)	578	652
		12.7%

部門別 에너지消費增加推移(最終에너지 基準)

	産業	輸送	家庭商業	公共其他	計
84 1/4(千TOE)	4,793	1,729	4,408	652	11,581
83 1/4(千TOE)	4,332	1,434	3,735	578	10,079
前年對比(%)	10.6	20.6	18.0	12.7	14.9
增加寄与度(%, P)	4.6	2.9	6.7	0.7	14.9

Ⅲ. 맺는말

금년 1/4분기중 에너지 소비급증은, 첫째,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산업 및

수송용 수요가 증대하였고,

둘째, 酷寒에 따른 난방용 수요급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급증은 금년 1/4분기중 北半球에 밀어 닥친 酷寒으로 인한 주요선공업국의 에너지 소비급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주요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多消費産業의 생산증가 및 酷寒으로 인해 금년 1~2月中 石油消費는 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년 1/4분기의 에너지소비증가는 계절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에 暖房用에너지 수요가 감소되는 2/4분기 이후에는 에너지소비증가추세가 금년 1/4분기보다 안정적으로 移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문은 금년중의 높은 鑛工業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에너지彈性値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였던 지난 75~79년의 0.96보다 낮은 0.85로 나타남으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노력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에너지수요증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전망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만, 輸送部門은 경기회복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으로 自家用 乘用車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觀光·레저등의 증가로 인한 旅客數가 급증하여 輸送部門에너지 신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自家用乘用車의 中·大型化 추세로 앞으로 同 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輸送部門에 대한 에너지소비절약 노력의 강화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大衆交通體制의 정비개선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에너지소비증가는 결과적으로 생산비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對外支拂을 加重시킴으로써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에너지소비절약을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解決해야만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